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개신교의 다양한 교파들이 공통적인 것과 달리 ‘성령님’에 대해서는 같은 교회에서도 이해가 달라서 조심하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 대해서 극단적인 성향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위험한 것과 같이,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어느 한 쪽의 극단으로 점점 몰아가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에 대해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의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면, 이는 성령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에 해당하는 단어는 본문에 없지만, 소멸치 말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불을 끄는 표현으로 성경에 쓰였습니다(마 25:8). 실제로 성령은 성경에서 불의 이미지로 그려졌습니다(행 2:1-4).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야 할 것은 바울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령의 불을 끄는 행위를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불이 꺼져간 것처럼, 지금도 성도 각 사람의 성령의 불과 교회 공동체의 불도 꺼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소멸하지 않고 더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의 은사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다. 본문 말씀을 가장 있는 그대로 적용한다면, 교회공동체에서 성령의 은사를 막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교회에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체들에게 다양하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고전 12:4-11). 우리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모든 은사들은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을 막고 타오르게 합니다. 만약 다른 지체를 낙심케 하거나 시험케 하여 은사를 쓰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성령을 소멸케하는 일이 됩니다.

이 말씀은 성도 개인의 은사에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자신에게 있는지, 더 나아가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진리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딤후 1:6)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쓰임 받으십시오.

둘째, 성령의 음성을 줄이지 마십시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본문 말씀은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을 일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경적인 정의에 따르면(고전 14:3), 예언은 현대 시대의 교회에서 설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분별하고 적용하는 것에는 아마 모든 성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소멸하는 비유가 ‘씨 뿌리는 자와 네 밭의 비유’(눅 8:11-15)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지 않으면 말씀이 휘발되어 소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종종 성령의 음성을 음소거(mute)시킵니다.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소멸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곧 영의 생각과 영의 기도가 됩니다.

셋째, 성령의 거룩함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도는 성결한 삶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temple, 고전 6:19)인 것과 부정한 삶을 사는 것은 곧 성령을 저버리는 것(살 전 4:8)이라고 말합니다. 부도덕하고 절제하지 않는 삶은 성령의 불을 꺼뜨립니다.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은 사탄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갈 5:17).

우리는 성령의 불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사그라들게 하거나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화를 이루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암송

이번 주 외울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 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22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8/12(월)	8/13(화)	8/14(수)	8/15(목)	8/16(금)	8/17(토)	8/18(주일)
사 50-53	사 54-57	사 58-61	사 62-65	사 66, 렘1-2	렘 3-4	렘 5-7

QT

이번 주 QT 말씀

8/12(월)	8/13(화)	8/14(수)	8/15(목)	8/16(금)	8/17(토)	8/18(주일)
왕하 22:12-20	왕하 23:1-9	왕하 23:10-20	왕하 23:21-30	왕하 23:31-24:7	왕하 24:8-20	왕하 25:1-17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은사로 섬기고 있나요?(혹은 섬기신 경험이 있나요?)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면 나눠주세요.
3. 보통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소화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예배와 경건생활을 통해 듣게 되는 성령의 음성을 더욱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결단을 나누어주세요.
4.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버려야 하는 육체의 소욕(갈 5:17-21)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결단하며 기도해주세요.